“부처님 전도선언, 삶이자 목표”



심재덕 포교사는… 1995년 2월 조계사불교대학을 수료하고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이후 부산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왔으며 부산 · 경남지역단 청소년천마팀장, 부산 · 경남지역단 감사, 부산 · 경남지역단 국장을 거쳐 포교사단 중앙임원 및 부산 · 경남지역단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포교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산지역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은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을 두 차례 받았으며 통일부 장관 표창장, 부산 시장 표창장, 중소기업 중앙회 표창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월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대는 자비보살

심재덕(71 ·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자문위원)

하성미 부산경남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법을 펼치지 않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가 아니라 초전법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첫 포교라고 본다면 포교가 불교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포교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자 불교를 지탱하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포교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신행이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평생의 원력으로 살고 있는 이가 있다. 심재덕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자문위원이다. 심 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 행복했고, 자신이 느낀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포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포교와 수계법회를 여는 등 불법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 전법을 실천해왔다. 산술적인 성과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고루 전해지기를 바라며 살아온 포교사 심재덕의 포교사 인생은 어느덧 20년 세월을 훌쩍 넘겼다. 쉼 없는 그의 길을 조명한다.

불연, 포교사가 되다

심 위원은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어깨에 쌀자루를 지고 산을 넘었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천년고찰 운흥사에 공양미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심 위원은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운흥사 도량에 들어서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다. 향냄새와 목탁소리가 좋았고, 부처님의 품 안에 안긴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심 위원은 자신이 불공의 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심 위원의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다. 심 위원은 심 위원의 부모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에 얻은 아들이었다.

부처님에 대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심 위원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의 삶 속엔 부처님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심 위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었고 바르게 믿고 싶어졌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던 심 위원은 1993년 어느 날 신문 광고를 통해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통신반으로 운영되는 강좌여서 부산에 사는 심 위원에게도 수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조계사 불교대학 수강신청을 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가 강의 교재테이프를 받아 내려왔다. 그리고 받아온 교재를 통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1993년 조계사불교대학 통신반 2년 과정을 수료했고, 수료 후 포교사 1기가 됐다. 심 위원은 자신이 포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심 위원은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진리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합니까? 출가는 하지 못했어도 재가자가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스님들이 법을 잘 펴시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 삶이 다하는 날 까지 포교사로 살아 갈 이유입니다”

심 위원은 조계사불교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바로 부산 범어사에서 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쉼 없는 공부, 지역단장이 되다

심 위원은 1999년 조계종 포교사단이 정식 창립하기 전인 1995년 포교사들의 모임인 포교사회서 활동을 시작했다. 범어사로 무작정 나선 심 위원은 범어사에서 당시 포교국장이었던 지종 스님을 만났다. 지종 스님이 심 위원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포교와 수행에 관한 일지’ 였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수행으로 삶을 다듬는 것이 먼저였다. 심 위원은 공부할 도량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포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소양을 쌓으며 포교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심 위원은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 이어갔다.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제1회 포교사전문화교육이수, 포교사전문화교육청소년교육과정이수, 동국대학교물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전공 석사, 부교문화해설분야 전문포교사품수, 고심정사 불교대학 경전반 공부 등 심 위원은 쉼 없이 공부했다. 이후 2013년 12월에는 조계종 재가자 최고 지도자 단계인 ‘선혜’ 품수를 받았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포교사가 일반인 보다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배워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지혜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주기 위해 부족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심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7〉
B4 책세상 상인 스님의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
B5 문화 특집다큐 ‘매혹의 실크로드’
B6 학술 “北 불상 조성자, 한반도 중 · 남부 佛母”